

거래량 반짝 위축...큰 충격·혼란 없이 일단 안착

■ 주간 증시 포커스

10조~15조원 편성 논의 추경, 거의 유일한 호재 정부 정책 수혜주 관심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일주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30% 확대 한 첫 주에 큰 충격은 없었다. 상하한가 폭을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린 데 따른 부작용 우려와는 달리 증시는 별다른 혼란 없이 무난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선주의 이상 급등 등의 일부 종목의 이유 없는 변동성 확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코스닥 일부 우선주 이상 급등 커진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투자 신중 기해야

◇주간상승률 1위 태양금속주...세배 가까이 급등=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경계심에도 한 주간 코스피는 2,052.17에서 2,046.96으로 0.2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지수는 712.40에서 729.92로 2.46% 올랐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15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4조9689억원으로 직전 거래일 6조1522억원보다 22.53%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대금은 이틀날 6조3천604억원으로 늘었고 17~19일에는 5조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주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5조4832억원이었다. 이는 이달 1~12일 6조44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평균 5조4천200억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5일에는 3조3024억원 규모로 추종했다가 16일부터 4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를 비롯해 대부분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일부 중·소형주는 호재나 악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변동성이 커졌다. 유통 주식의 적은 우선주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한 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태양금속주로 주가가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가격제한폭 확대 직전인 12일 증가 115원에서 19일 3165원으로 상승률이 183.86%에 달했다.



지난 19일 서울 증권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거래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전날보다 4.72포인트 오른 729.92로 전날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12월 13일 733.6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19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합뉴스

SK네트웍스우는 같은 기간 2만11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176.78% 급등했다. 진흥기업우B(97.59%)와 녹십자홀딩스1우(92.26%), 녹십자홀딩스2우(88.36%) 등 주간 상승률 상위 5위 종목이 모두 우선주였다. 상승률 상위 10위권 종목도 삼양홀딩스와 레드로버를 제외한 8개 종목이 모두 우선주다. 하락률은 STS반도체가 5060원에서 2260원으로 55.34% 하락했다. 순식간에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스포츠서울(-34.48%), 휘닉스소재(-33.93%), 코아로직(-32.93%), 엠젠(-30.79%) 등도 큰 폭으로 내렸다.

◇“공정적 측면 확인...제도 안착 가능성”=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산 시스템에도 오류가 없었다는 점에서 출발은 무난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도입한 정적변동성완화장치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지난주 하루 평균 유가증권시장에서 118회, 코스닥시장에서 127회 각각 발동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엇보인다”며 “가격 발견의 신속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우선주가 급등했지만, 시장 변동성

확대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경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시행 첫 주가 무난하게 지나갔고 매매 제도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곧 안정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선주가 급등하는 문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규 현대증권 포트폴리오전략팀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 휘둘러 손절매나 추격매수로 대응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저금리에...가계 저축성 예금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 증시 고객예탁금 급증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등에 가입해 목돈을 만들어보려는 가계의 저축 욕구가 저금리 탓에 줄어든 때문이다. 저축을 하지 않은 돈 일부는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일부는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가계가 예금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액은 547조73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508억원(5.1%) 늘었지만, 이 중 저축성 예금(492조504억원)은 3.8% 증가에 그쳤다.

월별로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을 보면 금

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1.0%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증가율은 2008년 10월 8.0%로 높아지고서 서서히 상승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 각각 17.3%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투자리스크 증가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한은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 상황이 심화하자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도 떨어졌다. 무엇보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정기예금 등 은행 저축으로 돈을 불리려는 욕구가 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저금리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55조68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344억원(18.1%) 늘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쓰려고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가계 자금은 벌써 은행 밖으로 빠져나왔다. 증시의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20조99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389억원(42.3%)이나 증가했다.

고객예탁금은 지난달과 이달 중에도 20조~22조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18일 현재 20조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과 보험사 등에서 판매되는 금전신탁의 수신택액도 4월 말 기준 316조96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4163억원, 20.7%나 늘어났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추가연계증권(ELS)과 추가연계파생결합증권(ELB)의 미상환 잔액도 2월 말 현재 56조56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9311억원(43.3%)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투데이 경매

대인동 증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리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독서실,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물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

- 대상 부동산
가. 광주 남구 진월동 산3 일야 15,636㎡
나. 광주 남구 진월동 산3-7 일야 100㎡
다. 위 지상 재개발 및 권리사(미등기)
- 소유자
하남정씨대중회
- 최저 입찰가
금 12,500,000,000원(일백억이십오억원)
- 입찰방법
최저입찰가격 공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입찰매각)
- 입찰일시 및 장소
2015. 7. 6. 11:00 변호사 진용태 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준법로 10-1, 3층(지산동)]
- 입찰의 자세한 참가 절차 및 기타 자세한 공고문은
하남정씨대중회 [광주 남구 백운동 646-10 501호, 062-671-9586] 내지 변호사 진용태 법률사무소 (062-226-2080)에서 문의 또는 교부받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 6. 22
하남정씨 대중회
대표자 정해구

光州日報 廣告문의 062-226-6900